

##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엔료(遠慮)

일본인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사양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‘엔료문화’임

### □ 일상생활에서의 엔료

- 엔료(遠慮)라는 말은 과거 에도(江戸)시대부터 쓰였는데 자기 집에만 있도록 해 바깥출입을 못하게 하는 형벌의 하나였음
  - 그 대상은 사무라이 혹은 승려였으며, 이렇게 유래되어 지금은 ‘삼가다’, ‘사양하다’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
-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 엔료라는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수 없이 많이 접하게 됨
  -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말보다는 게시판, 팸말, 안내문 등을 미리 붙여 주의 내지는 경고를 함으로써 서로간의 말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관습이 엿보인다고 입을 모음
  - \* 가령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, 이곳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문장을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음

### □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엔료

- 엔료라는 말이 우리말로 ‘삼가다’ 정도로 직역이 된다면 좋겠지

만, 엔료는 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일본어 중 대표적인 무리에 속함

- 엔료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번역은 어려워도 그 설명이 가능해짐
-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식사시간이 다가와 주인이 식사하기를 청하면 손님은 엔료시데(遠慮して, 사양하면서) 거절하지만 주인은 도우조 엔료나사라 나이데(どうぞ遠慮なさらしないで, 의역한다면, 그러지 말고 드시고 가세요)라고 말하는데 손님이 주인의 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엔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짐
- 엔료는 특정한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데도 쓰이는데 즉 엔료 노 나이 아이다가라(遠慮のない間柄, 스스럼없는 사이)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듯이 엔료는 거리낌 혹은 꺼림의 의미도 갖고 있음
- 특정한 모임에서 너무 숨김없이 솔직히 발언하면 엔료가 없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음
- 즉 엔료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짐
- 엔료문화는 집단적 행동의 규범으로 나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일본적 개인행동의 기본적인 원리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

## □ 일본을 알기 위한 엔료의 이해

-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보면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자의 조언이 끝난 후 회원들에게 질문과 의견을 듣는 순서가 오면 회의장은 한참 동안 조용해지곤 함

- 진행자가 회의장에 모인 회원들의 질문이나 발언을 유도해 보지만, 좀처럼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엔료하고 있는 것임
- \*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시 나보다 더 중요한 발언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 내 욕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아닌 전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임
- 이런 경우에는 사회자가 회의장의 누군가를 지명하여 발언을 부탁하는데 이 발언을 계기로 회의장은 뜨거워지며 참고 있었던 발언욕구가 터져 나와 서로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하려함
- \*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발언으로 이 정도 시간을 소요했다면 내가 하려 했던 발언도 시간과 내용을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엔료는 하지 않게 됨
- 가장 엔료가 불필요한 사이라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사이 일 것임
- 그러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닌 사람에게 엔료는 일본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규범임
- 엔료는 주제넘게 참견하거나 남의 일에 너무 깊게 간섭하는 행위를 방지해주는 방어벽이 되기 때문으로, 일본 사회에서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